

최근 개최된 한 심포지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폴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반면, 갈등해결 능력은 27위로 꼴지에 가까워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선, 2013). 특히 갈등이 높은 부문은 계층 갈등으로 고령화·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세대 갈등과 민족·종교 갈등 지표도 부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진보·보수적 입장 차이, 세대 및 지역 차이,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동수, 김옥환, 이상현, 정태연, 2011; 안혜정, 이민주, 정태연, 2013). 이는 우리가 사회를 얼마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와도 연결되는데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사회가 ‘불공평한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희웅, 2010).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데 따른 집단 간 불신과 위화감 등이 사회 갈등의 양상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회 정의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모든 구성원이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이상이며(Bell, 1997) 누구도 이민, 인종, 민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신체적 능력,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이나 권리, 의학적 치료에 접근하는 데 소외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Constantine, Hage, Kindaichi, & Bryant, 2007). 또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기본 전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

를 가지고 사회의 현안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기도 한다(Toporek & Williams, 2006; 정재각, 2006). Goodman, Liang, Helms, Latta, Sparks와 Weintraub(2004)는 사회 정의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그들의 삶의 향상시키는 자원들에 더 잘 접근하도록 사회적 가치, 사회 구조, 정책, 실천 등을 변화시키는 학문적이며 전문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종합해 볼 때 사회 정의에는 필연적으로 행동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이 보호되어 한다는 가치나 신념(Torres-Harding, Siers, & Olson, 2012)인 사회 정의는 소득 불균형,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소수 집단 차별, 반값 등록금 등 우리가 연일 매체로 접하고 있는 사회 갈등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는 철학, 법률,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온 반면 심리학에서는 논의된 역사가 짧은 것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정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심리학자가 사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확장할 것인지(Christie & Montiel, 2013; Ivey & Collins, 2003; Vasquez, 2012; Vera & Speight, 2003)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심리학 학위 과정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연구들(Beer, Spanierman, Greene & Todd, 2012; Burnes & Singh, 2010; Lewis, 2010; Toporek & Vaughn, 2010)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미국심리학회 “심리학자를 위한 윤리적 원칙 및 행동규범”(APA, 2010c)에서 평가 과정, 교육과 훈련, 연구와 출판, 치료 등에서의 공정한 처치를 위한 근간으로(Campbell, Vasquez, Behnke,

Kinscherff, 2010) 정의를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삼았으며 구성원들이 의회와 행정부를 통한 옹호 활동, 주요 기관 및 연합과의 협력, 매체를 통한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 적극적으로 사회 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APA, 2010a).

국내 심리학계에서도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반영한 듯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주제: 심리학, 공정사회를 향하다, 2012), 한국상담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주제: 사회 정의 실현으로서의 상담, 2012),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주제: 폭력과 트라우마를 위한 CBT, 2013),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주제: 임상심리학, 인권을 말한다, 2013) 등의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는 개인 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심리학의 전통적인 관심을 사회 참여적으로 확장했다는 데서 의의가 크지만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 정의 활동이 이뤄지는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치적 관심이나 종교/영성, 연령 등이 사회 정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된 바 있다(Hurtado, Engberg, Ponjuan, & Landreman, 2002). Ollif(2001)는 사회 정의 옹호에 대한 관심 및 흥미가 사회 정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기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Nilsson과 Schmidt(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 정의 옹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와 정치적 관심이 사회 정의 활동을 예측하였고 특별히 백인 표본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성애자보다는 성 소수자가 사회 정의 옹호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심리학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육 환경에 대해 교육생이 인식하고 이해한 정도가 일반적인 활동가 정체성이나 영성을 넘어서서 유의미하게 사회 정의 실천을 예측하였으며(Beer, Spanierman, Greene & Todd, 2012)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의 경험,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영향이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Caldwell & Vera, 2010). 개인의 기질적 측면과 사회 정의 옹호 행동을 관련짓는 연구에서는 신경증과 친화성이 사회 정의 옹호와 관련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Ashton, Paunonen, Helmes & Jackson, 1998)가 있었으며 Miller와 Sendrowitz(2011)는 성격 유형(예, 사회적 성격, Holland, 1997)이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다르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기도 하였다.

한편, 사회 정의와 관련된 국내의 심리학적 연구로는 정의의 지각 및 도덕적 지향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Yamaguchi, 최상진, 김기범, 1998; 조궁호, 2007),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와 소수(약자) 집단에 대한 태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김혜숙, 2007) 등이 있었으며 최근 들어 상담자의 사회 정의 옹호에 따라 소수 및 다수집단 내담자들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구자란, 2010),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범죄자의 처벌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최승혁, 허태균, 2011), 성별에 따라 자기상과 공정세상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지(이재이, 2013)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앞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 정의 활동의 심리적 발달 기제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사회 정의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이 시기의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인 자아 정체성 및 가치감 확립과도 매우 밀접한 주제로 향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구성원 역할에 대한 준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인권 의식에 대한 교육학 분야의 일부 연구(이승미, 1999; 박병영, 2002)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통제되고 수동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유보해 오다가 대학생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적, 능동적인 생활로의 전환 및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동안 지체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압력을 경험하게 된다(이은희, 2004). 그만큼 대학 진학 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있어서는 충분한 발달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찾기 위해 사회 정의 실천을 예측하는 초기 연구의 이론적 틀로써 진로관련 선택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그에 대한 관심과 목표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회 인지 진로 이론(social-cognitive career theory, 이하 SCCT; Lent, Brown & Hackett, 1994) 모델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서, 개인적 관련성, 정당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지각 등 사회 정의 판단에 대한 발달 과정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연구는 존재하지만 어떻게 개인이 내적으로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이를 실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Miller & Sendrowitz,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 정의 관

심과 실천의 발달 과정을 연구한 Miller와 동료들(2009)의 연구를 국내 대학생에 대상으로 반복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국내 대학생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효능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iller와 동료들(2009)의 연구 결과와는 사회 정의 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와 장애물 같은 맥락적 변인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거쳐 행동을 실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내 대학생의 경우 맥락적 변인들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한편, SCCT 모델은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발달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적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인지적 기제(예,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사회 정의 옹호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Van Voorhis & Hostetter, 2006; Ollif, 2001) 사회 정의 옹호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실제 참여를 예측했다는 논의(Nilsson & Schmidt, 2005) 또한 선택 목표(예, 의도)가 실제 행동을 예측한다는 SCCT의 가설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사회 정의 영역에 SSCT 모델을 적용한 Miller 등(2009)의 연구에서는 본래의 SCCT 모델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관심, 선택 목표(예, 미래에 사회 정의 옹호 노력에 참여하려는 실천) 그리고 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장애를 설정하였다. Bandura(1986)의 사회인지 이론에 기반하여 Miller 등(2009)이 각 변인들에 대해 정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Social justice self-efficacy)*은 사회 정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능력에 대한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신념이다. 이는 개인 내적 차원(예, 자기 지각과 모니터링), 대인 간 차원(예, 사회적 불평등에 관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공동체 차원(예, 공동체의 특수한 요구를 평가하거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제도적/정치적 차원(예, 차별적인 정책이나 관습에 맞서기)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차원들은 다양한 사회 정의 이론들(Goodman et al., 2004; Neville & Mobley, 2001; Vera & Speight, 2003)을 통합한 것이다. 개념적으로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은 (1) 사회 정의 옹호에 대한 의사결정, (2) 옹호 활동에 쏟는 노력, (3) 장애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 정의 옹호 활동을 지속할지, (4) 사회 정의 옹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Bandura, 1997).

*사회 정의 결과 기대(Social justice outcome expectation)*는 사회 정의 활동을 수행했을 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말한다(Lent & Brown, 2006).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이 사회 정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 정의 결과 기대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사회 정의 활동을 수행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사회적(예, 사회적 소외 계층을 도움), 물질적(예, 금전적 보상이나 특권에 대한 접근), 자기-평가적 차원(예, 개인적 가치나 이상을 실행, Lent & Brown, 2006)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회 정의 관심(Social justice Interest)*은 사회 정의 활동과 관련한 좋음, 싫음, 무관심의 양

식을 말하며(Lent & Brown, 2006) *사회 정의 실천(Social justice Commitment)*은 자신이 계획한 사회 정의 활동과 관련된 선택-동의된 목표나 구체적인 수행 활동을 말한다(Lent & Brown, 2006). SCCT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동의된 목표들은 당장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장기간 동안 개인의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목표나 실천을 성취하도록 행동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Lent, Brown et al., 2003).

*사회 정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장애(Social supports and barriers to social justice engagement)*는 목표 획득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예상 가능하고 가깝게 사회 정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인들이다. Lent 등(1994)은 이러한 맥락적 요인들을 관심과 목표, 행동 등에 영향을 끼치는 매개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맥락적 요인들의 역할은 최근 SCCT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본래 SCCT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장애와 같은 근접한 맥락적 변인들이 실천에 직접 효과를 준다고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Bandura(2000)는 맥락적 요인들이 자기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타학문 분야(Lent, Brown et al., 2003; Lent et al., 2008)에서 진행된 SSCT 모델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들에서도 직접 효과를 포함한 간접 효과 모델의 설명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반복 검증하고자 한 Miller 등(2009)의 연구는 27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91명(69.7%), 남성이 83명(30.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9.64세($SD=3.08$)였다. 인종적 배경으로는 유럽계가 224명(81.8%), 라틴계가 16명

(5.8%), 아프리카계가 13명(4.7%), 아시아계가 8명(2.9%), 원주민계가 2명(0.7%), 두 가지 인종적 배경이 5명(1.8%)이었으며(기타 응답 6명) 1학년이 101명(36.9%), 2학년이 61명(22.3%), 3학년이 59명(21.5%), 4학년이 52명(19.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무응답 1명). 전공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회계, 미술, 생물학, 경영, 경제, 정보 과학, 언어학, 수학, 심리학, 공공 정책, 사회학, 도시 연구 등의 다양한 전공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며 가족의 연간 수입은 \$150,000 이상이 49명(17.8%), \$100,000가 74명(27.0%), \$75,000가 54명(19.7%), \$50,000가 58명(21.2%), \$25,000가 17명(6.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기타 및 무응답 22명).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 정의의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대학생의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직접적으로 또한 결과 기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 정의 관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과 관심은 모두 미래의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장애가 실천에 끼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사회적 지지가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와 장애 모두가 결과 기대와 관심을 거치는 경로로 실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회 정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높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사회적 이슈 과정,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 정의 옹호 그룹 등 다양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지 않은 등의 한계를 지니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의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주고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하는 Miller 등(2009)의 사회 정의에 대한 SCCT 모델은 국내 대학생들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절차

자료 수집은 2013년 3-4월에 걸쳐 서울, 경기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 배부는 대부분 연구자가 직접 수업 시간 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소개 및 설문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중 일부인 76명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방식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료 수집에 사용된 설문지는 사회적 이슈 질문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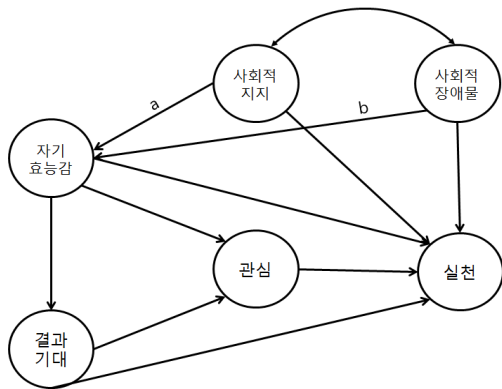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주: 경로 a와 b는 직접 효과 모델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간접 효과 모델에만 추가됨

인구통계학적 및 기타 변인 질문으로 구성된 총 82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였으며, 30여분의 설문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43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하여 33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무응답을 제외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89명(56.1%), 남성이 144명(42.7%)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22.1세($SD=2.60$)로 20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구 참여자의 소속 대학으로는 인문대가 40명(11.9%), 사회대가 190명(56.4%), 경영대가 54명(16.0%), 자연대가 13명(3.9%), 공대가 17명(5.0%), 사범대, 음대 등 기타대가 19명(5.6%)으로 사회대 소속 학생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한 가족의 월 소득을 100만원 이하가 16명(4.7%), 100-200만원이 29명(8.6%), 200-300만원이 50명(14.8%), 300-400만원이 73명(21.7%), 400만원 이상이 161명(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사회적 이슈 질문지(Social Issues Questionnaire: SIQ)

Miller 등(2007)이 개발한 사회적 이슈 질문지는 Lent와 동료들(Lent et al., 2001, 2008; Lent, Brown et al., 2003)이 만든 학문적 행동 척도(Instrument of Academic Behavior)를 번안하

여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에 맞게 만든 것으로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20문항, 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금 활동이나 기부를 한다.”), 사회 정의 결과 기대(10문항, 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정의 관심(9문항, 예, “인권 탄압, 차별,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사회 정의 실천(4문항, 예, “향후 몇 년 간 나는 사회 정의 활동을 계속하거나 새로 참여할 계획이 있다.”), 사회 정의 사회적 지지와 장애(9문항, 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사회 정의 활동을 지지해 줄 것이다.”, “나의 사회 정의 활동을 부모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압박을 느낄 것이다.”) 등을 측정한다. SIQ의 문항들은 사회 정의 문헌(예, Toporek & Williams, 2006; Vera & Speight, 2003) 검토에 기반하여 수정되었으며 사회 정의와 SCCT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메일로 원 저자의 동의를 받아 SIQ의 문항들을 번역한 후 미국에서 장기 거주 경험이 있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잘 알면서도 이중 언어구사가 가능한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토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는 하위 척도별로 문항 응답을 합산하고 각각의 척도의 문항 수로 나누어서 계산되며, 각 문항에 대해 0-9점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Miller 등(2009)의 연구에서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94(요인별로 개인 내적 차원 .80, 대인 간 차원 .88, 공동체 차원 .86, 제도적/정치적 차원 .92), 사회 정의 결과 기대 .81, 사회 정의 관심 .90, 사회 정의 실천 .93, 사회 정의 사회적 지지 .90, 사회 정의 사회적 장애 .79이었으며, 본 연구의 경우 각각 .95

(.83, .81, .88, .89), .88, .90, .91, .86, .72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24: SDS-24)

본 연구에서는 김용석(2010)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대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인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인 Social Desirability Scale-24 (이하 SDS-24)를 사용하였다. SDS-24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좋은 기술과 태도를 소유한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무의식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자기 기만(16문항)과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의식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인상 관리(8문항)의 2요인으로 되어 있다. 김용석(201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자기 기만 요인이 인상 관리보다 측정의 과대 추정과 더 큰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원 논문에 따라 자기 기만을 통제된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제 방법으로는 자기 기만 척도 최대값(16점) 받은 피험자를 제외하고 점수 계산하는 방법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원점수와 수정 점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김용석(2010)의 연구에서 자기 기만의 내적 합치도는 .84, 인상 관리의 내적 합치도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각각 .80, .71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및 기타 변인 질문지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성별, 연령, 소속 단과대, 가족의 총 월 소득 등을 조사하였으며, 사회 정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Beer, Spanierman, Greene & Todd, 2012; Linnemeyer, 2010; Miller & Sendrowitz, 2011) 사

회적 불평등이나 사회 정의에 관심있는 주변 지인의 여부(예, 가족/친지, 친구, 선후배, 선생님, 유명 인사 등),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의 경험(예, 경제적 수준, 여성, 인종/민족, 성적 지향, 종교, 장애, 학벌, 지역 등), 사회적 불평등 혹은 사회 정의에 관한 교육 경험(예, 교내 공식적 과목 수강, 특강이나 세미나 참석 등), 사회적 불평등 혹은 사회 정의를 다루는 문헌 및 매체 접근성(예, 서적, 신문, 인터넷 뉴스 기사, SNS, 영상 매체 등)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및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여 응답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의 과대추정과 상관이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자기 기만 하위 척도를 통제된 수정 점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에 의해 연구 모형에 사용되는 잠재 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모형이 대학생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 알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실천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장애의 직접 효과와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 각각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 후 적합도를 판단하였고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통해 모델 적합도와 모델 간명도를 고려한 최종 모델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델에 사용될 사회적 이슈 질문지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아 구조방정식 모형에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에 사용될 사회적 이슈 질문지 변인들 간 관련성은 -.22-.78 사이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장애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했다. 관심은 자기 효능감($r=.78$), 실천($r=.73$)과 매우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은 결과 기대($r=.45$), 실천($r=.67$), 사회적 지지($r=.49$)와 결과 기대는 관심($r=.45$), 실천($r=.50$), 사회적 지지($r=.46$)와 사회적 지지는 관심($r=.51$), 실천($r=.55$)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자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장애는 사회적 지지($r=-.22$)와 부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대부분의 변인들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따른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천을 종속 변인으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관심,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장애를 독립 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VIF값이 독립 변수 각각에 대해 2.66, 1.40, 2.72, 1.63, 1.08로 기준값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N=337)

	1	2	3	4	5	6	7	8
1. 자기 효능감	-							
2. 결과 기대	.45**	-						
3. 관심	.78**	.45**	-					
4. 실천	.67**	.50**	.73**	-				
5. 사회적 지지	.49**	.46**	.51**	.55**	-			
6. 사회적 장애	.01	-.04	.00	-.17**	-.22**	-		
7. 자기 기만	.38**	.30**	.27**	.26**	.25**	-.02	-	
8. 인상 관리	.18**	.13*	.14**	.12*	.13*	-.19**	.20**	-
왜도	-.33	-.52	-.41	-.17	-.01	.17	.12	.77
첨도	-.01	.64	-.32	-.39	-.32	-.13	-.47	-.16
M	4.99	5.27	5.18	4.59	4.85	3.78	7.43	1.94
SD	1.54	1.36	1.74	2.00	1.79	1.66	3.21	1.75

* $p < .05$, ** $p < .01$

사회적 바람직성의 통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여 응답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자기 기만 하위 척도를 통제한 수정 점수를 변인 각각에 대해 산출하였다. 수정 점수를 산출한 과정은 본 척도의 개발 논문(김용석, 2010)을 따랐다. 먼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고려하기 이전의 각 변인의 평균값(원점수)을 계산하였다. 그 다음 각 변인을 종속 변수로 자기 기만 점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을 검증하였다. 각 변인의 원점수와 수정 점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 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다요인 및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에 대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15, N=337)=663.37, p<.001; TLI=.902; CFI=.917; RMSEA=.079$). *TLI, CFI*는 수용 기준 (>.9)보다 높아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Hu & Bentler, 1999), *RMSEA*는 수용 기준(<.05)보다는 크지만 .08보다는 작아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Browne & Cudeck, 1993).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79-.88, 결과 기대는 .85-.92, 관심은 .87-.90였으며, 실천은 .72-.92, 사회적 지지는 .63-.85, 사회적 장애는 .38-.87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부하량들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잠재변인 간 상관은 -.27(사회적 지지-장애)~.83(자기 효능감-관심)까지 분

표 2.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각 변인의 수정 점수 (N=337)

변인	원점수	b(회귀계수값)	수정 점수	원점수-수정 점수
자기 효능감	4.99	.180	3.66	1.33
결과 기대	5.27	.127	4.32	0.95
관심	5.18	.148	4.08	1.10
실천	4.59	.162	3.39	1.20
사회적 지지	4.85	.139	3.81	1.04
사회적 장애	3.78	-.012	3.87	-0.09

표 3.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N=337)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1	663.370	215	.000	.902	.917	.079 (.072-.086)

포하며 사회적 장애-자기 효능감, 사회적 장애-결과기대, 사회적 장애-관심, 사회적 장애-실천을 제외하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3개의 측정변인으로 6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측정 모형은 잠재변인을 잘 구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 모형 검증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모형의 비교

사회적 지지와 장애가 실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 효과 모델과 자기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 효과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간접 효과 모델($\chi^2(219, N=337)=706.896, p < .001; TLI=.896; CFI=.910; RMSEA=.081$)이 직접 효과 모델($\chi^2(221, N=337)=800.771, p < .001; TLI=.877; CFI=.893; RMSEA=.088$)보다 자료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 효과 모델이 직접 효과 모델을 내포하므로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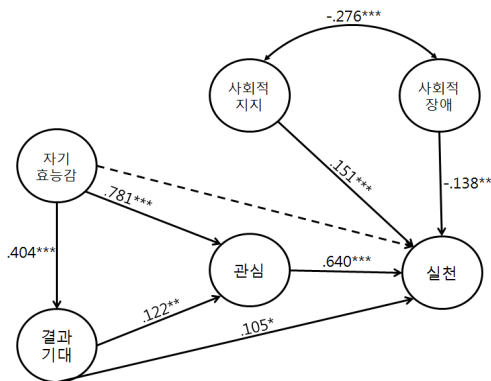


그림 2. 직접 효과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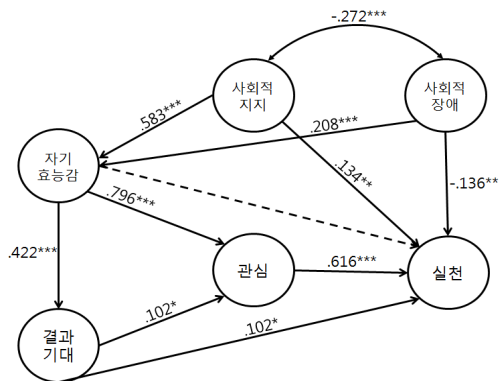


그림 3. 간접 효과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χ^2 차이 검증(D^2)을 통해 확인해 보았을 때 두 모델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D^2=93.875, v=2, p < 0.001$).

대안적 연구 모형의 도출

모델 적합도와 모델 간명도를 고려한 최적의 대안적 연구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M.I.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지지'에서 '결과 기대'로 가는 경로가 가장 큰 값(20.399)을 보였다. 모수의 방향은 (+)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많은 대학생의 경우 사회 정의에 대한 결과 기대가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에서 '결과 기대'로의 경로를 자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제시한 수정 모델은 적합도의 모든 지수들이 제안모델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chi^2(218, N=337)=674.549, p < .001; TLI=.902; CFI=.916; RMSEA=.079$)으로 나타났다. χ^2 차이 검증(D^2) 결과에서 유의미하였으며($D^2=32.347, v=1, p < 0.001$) 동시에 χ^2 의 실질적인 감소(32.347)가 예측된 값(20.399)보다 크게 나타난 값이었다.

표 4.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N=337)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직접	800.771	221	.000	.877	.893	.088 (.082-.095)
간접	706.896	219	.000	.896	.910	.081 (.075-.088)
수정	674.549	218	.000	.902	.916	.079 (.072-.086)
최종	676.207	219	.000	.902	.915	.079 (.072-.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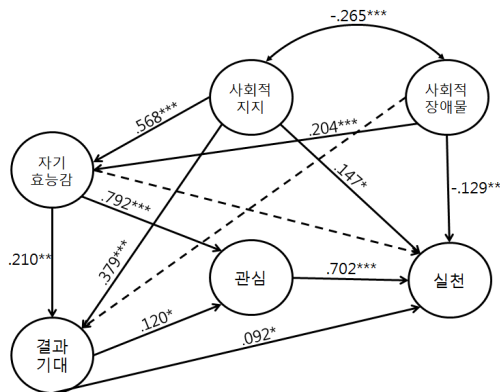


그림 4. 최종 연구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최종모델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다음으로 불필요한 모수를 제거하여 모델 간명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 효능감’에서 ‘실천’으로 가는 비유의적 경로를 제거하였다. 이는 자기 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결과 기대나 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풀이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그 결과 최종 모델은 수정 모델에 비해 자유도가 1 증가한 반면 적

합도 통계량($\chi^2(219, N=337)=676.207, p < .001$; $TLI=.902$; $CFI=.915$; $RMSEA=.079$)이 실질적으로 같고 M.I.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두 모델 사이에 차이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2=1.658, v=1, p > 0.05$).

최종 모델은 TLI, CFI 가 수용 기준($>.9$)보다 높아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Hu & Bentler, 1999), $RMSEA$ 는 수용 기준($<.05$)보다는 크지만 $.08$ 보다는 작아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Browne & Cudeck, 1993). 또한 자기 효능감의 30%, 결과 기대의 27%, 관심의 72%, 실천의 71%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인의 기술 통계

앞서 제시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외에 사회 정의의 활동과 관련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 문항들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변에 사회적 불평등함이나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244명(72.4%)이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을 겪어 본 적이 있는지

표 5. 기타 변인의 기술 통계 결과 (N=337)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주변 지인의 여부	있음 (244명, 72.4%)	학과 친구나 선후배	108	44.3
		대학 입학 전부터 가깝게 지내는 친구	74	30.3
		가족, 친지	66	27.0
		동아리/동호회 구성원	50	20.5
		교수님	49	20.1
		기타(유명인사, 종교인 등)	119	48.7
		없음(93명, 27.6%)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의 경험	있음 (198명, 58.8%)	학벌에 따른 차별	82	41.4
		여성 차별	78	39.4
		외모에 따른 차별	67	33.8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58	29.3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32	16.2
		지역에 따른 차별	32	16.2
		기타(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 장애 등)	89	44.9
없음(139명, 41.2%)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한 교육	경험함 (117명, 34.7%)	공식적인 과목 수강	56	47.9
		한 과목의 일부로 관련 내용 다룸	61	52.1
		특강이나 세미나, 토론에 참석 (정규 교과과정 외)	29	24.8
		경험 없음(220명, 65.3%)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한 문헌/매체 접촉	접촉함 (332명, 98.5%)	인터넷 뉴스 기사	218	69.4
		TV/라디오 방송 (예, 시사 프로그램, 강연 등)	158	50.3
		신문	129	41.1
		SNS(예, 트위터, 페이스북 등)	129	41.1
		서적(예, 단행본이나 잡지 등)	97	30.9
		극장에서 개봉되는 영상 매체 (예, 영화, 다큐멘터리 등)	74	23.6
		접촉 안 함(5명, 1.5%)		

에 대해서는 198명(58.8%)이 1가지 범주 이상 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경험이 사회 정의에 의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회적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117명(34.7%)이 있다 5명(1.5%),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0명

(5.9%), ‘약간 도움이 된다’가 68명(20.2%), ‘대체로 도움이 된다’가 85명(25.2%), ‘매우 도움이 된다’가 18명(5.3%)로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 정의를 다루는 문헌 및 매체를 접하는 빈도에 대해서는 ‘전혀 접하지 않는다’가 5명(1.5%), ‘거의 접하지 않는다’가 39명(11.6%), ‘때때로 접한다’가 210명(62.3%), ‘자주 접한다’가 66명(19.6%), ‘매우 자주 접한다’가 8명(2.4%)으로 교육 경험에 비해 대부분 문헌 및 매체를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접하는 경험이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4명(1.2%),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명(3.9%), ‘약간 도움이 된다’가 139명(41.2%), ‘대체로 도움이 된다’가 132명(39.2%), ‘매우 도움이 된다’가 37명(11.0%)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권 대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조건 하에 Miller 등(2009)이 사용한 SCCT 모델이 국내 대학생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및 실천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가를 반복 검증하였다. 또한 최근 SCCT 모델 연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Lent et al., 2001, 2003)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장애 등의 맥락적 요인이 사회 정의 실천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자기 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국내 대학

생들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및 실천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SCCT 모델에 기반한 선행 연구 결과들(Kahn, 2001; Lent et al., 2008; 이혜숙, 2006)과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에 대한 SCCT 모델은 국내 대학생들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 모델은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여 SCCT 모델의 핵심적인 변인들이 사회 정의 영역에도 유용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와 함께 자기 효능감은 결과 기대를 통하여 관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고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자기 효능감은 결과 기대와 비교하여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의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는 데 자기 효능감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사회 정의 활동에 관한 관심은 미래의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정의 활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결과가 반복 검증하고자 하는 Miller 등(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실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대신 결과 기대가 실천에 미치

는 직접적인 효과가 일부 유의하였다. 이는 국내 대학생들에게 사회 정의 활동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만으로는 직접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맥락적 요인들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장애가 실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자기 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간접 효과 모델이 지지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Lent et al., 2001, 2003)과 일치하는 결과로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이는 관심으로 이어져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주변에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적응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대리 학습을 통해서(Miller et al., 2009) 본인 또한 사회 정의 활동에 잘 참여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 정의 활동의 실천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 및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므로 주변 사람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실천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기존의 신념 및 가치관에 더해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영향을 줄 때 간접적으로 실천에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애 또한 자기 효능감과 관심을 통하여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이는 국내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장애가 자기 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활동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

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자기 효능감이 직접적인 실천이 아닌 본인이 인식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들이 사회적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 정의 활동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다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장애가 직접적으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대학생들이 사회 정의 실천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장애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 또는 사회적 장애가 낮을 경우 이러한 맥락적 요인이 다른 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실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 대학생들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안적 모델을 탐색한 결과, 결과 기대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간접 효과가 입증되었다. 즉, 주변에서 사회 정의 실천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갖게 되어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Miller 등(2009)의 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으로 다른 영역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경로이기 때문에 결과 기대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실천에 대한 영향은 사회 정의 영역에서만 보여지는 특수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회 정의 영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명확히 연구된 바가 없지만 사회 정의 활동이 일반적인 학문이나 진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회 체제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결과에 대한 성

공적인 기대로 직접 연결된다고 유추하는 바이다.

넷째, 사회 정의에 대한 SCCT 모델을 검증하기 이전 단계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이 원점수보다 수정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보고식 측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과대 추정의 오류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 정의와 관련한 영역은 매스미디어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답 결과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데 따른 사회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학생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기 효능감이 입증되었는데, 이는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촉진하는 데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SCCT의 선택 모형(Lent et al., 1994)이 제시한 것처럼 학습 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의 대상자 중 34.7%만이 사회적 불평등 및 사회 정의에 관한 교육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교육 경험이 사회 정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여 사회

정의 교육의 유용성에 비해 교육 경험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58.8%가 1가지 범주 이상의 차별을 경험한 현실적 상황에 비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이를 순기능적으로 사회 정의 활동에 연결시키는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andura(1997)가 말했듯이 학습 경험은 자기 효능감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증가시키므로 향후 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및 사회 정의에 관한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정의에 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 효능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 기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정의에 관한 공감대를 높이고 대학생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에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71.8%가 1명 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사회 정의 활동과 관련한 직간접적 지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 측면일 뿐이며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안에서 자기 효능감이 발달하는 것이므로 대학생들에게 멘토링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단체나 동아리 등의 지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 정의를 다루는 문헌 및 매체를 간헐적으로나마 접하며 그것이 사회 정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적 불평등 및 사회 정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촉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Miller 등(2009)의 결과와 몇몇 경로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들 고유의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 발달 경로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장애물이 실천에 (자기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또한 대학 입학 후에는 가중되는 취업난으로 사회 정의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결과가 좋을지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 기대가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은 국내 대학생들의 평가 염려 완벽주의 특성과 함께 결과가 성공적일 것일 것이냐는 기대가 특히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김정은, 2012).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 모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SIQ는 Miller 등(2007)이 개발한 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구성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탄탄하고 상담전공 교수 1인의 안면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측정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SCCT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 정의 영역 관한 추가적인 연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렴 및 준거관련 타당도 등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사

회 정의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는 검증하지 못했다. 선행 연구(Beer, Spanierman, Greene & Todd, 2012; Caldwell & Vera, 2010)에 기반하여 그에 영향을 줄 것이라 추측되는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주변 지인의 여부,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의 경험, 사회적 불평이나 차별에 대한 교육 등을 기타 변인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변인들이 연구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를 포함하여 모형 검증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덧붙여 본 연구 대상 중 가족의 월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과반수 가까이로 나타났는데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사회 정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므로(Parikh, Post & Flowers, 2011)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하여 사회 정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 모형에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 정의와 관련한 국내 연구의 탐색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 정의 실천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써 SCCT 모형을 채택하고 Miller 등(2009)의 연구를 반복 검증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 정의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 미미한 영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본 주제에 대한 관심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이후 양적 성장에 주력해온 한국 사회의 실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사회 정의 주제에 관해 서구사회와 차별화되는 문화특수적 접근이 필요하며 질적 연구 및 탐색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참고문헌

- 구자란 (2010). 상담자의 사회정의옹호에 따른 소수 및 다수집단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수, 김옥환, 이상현, 정태연 (2011).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461-483.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김정은 (2012). 수용 전념 치료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대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경험 회피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박병영 (2002). 고등학생의 여성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혜정, 이민주, 정태연 (2013). 한국 사회와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보수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29-552.
- 윤희웅 (2010). [KSOI의 여론스코프] “우리 사회는 불공정” 74%. 주간경향. <http://newsmaker.khan.co.kr>
-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103-120.
- 이연선 (2013). 한국 사회갈등 OECD 3위지만 해결 능력은 27위로 최하위권.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이재이 (2013). 자기상과 공정세상 믿음과의 관계: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숙 (2006). 대학생의 직업적 흥미에 관한 사회인지적 분석. 교육연구, 41, 64-90.
- 정재각 (2007).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사회정의 관점에서. 한·독 사회과학논총, 16(2), 77-104.
- 조금호, 이재영 (2007). 문화성향, 성역할 정체감 및 도덕적 지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105-126.
- 최승혁, 허태균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형사처벌: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13-125.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a). 2009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st*, 65, 311-350.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c).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2002, Amended June 1, 2010)*. Retrieved from <http://www.apa.org/ethics/code/index.aspx>
- Ashton, M. C., Paunonen, S. V., Helmes, E., & Jackson, D. N. (1998). Kin altruism, reciprocal altruism,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Evolution and Human*

- Behavior*, 19(4), 243-25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dman.
- Beer, A. M., Spanierman, L. B., Greene, J. C., & Todd, N. R. (2012). Counseling psychology trainees' perceptions of training and commitments to social just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120-133.
- Bell, L. A. (1997). Theoretical foundations for social justice education. In M. Adams, L. A. Bell, & P. Griffin (Eds.), *Teaching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New York: Routledge.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nes, T. R., & Singh, A. A. (2010). Integrating social justice training into the practicum experience for psychology trainees: Starting earlier.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53-162.
- Campbell, L., Vasquez, M., Behnke, S., & Kinscherff, R. (2010). *APA ethics code commentary and case illustr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ristie, D. J., & Montiel, C. J. (2013). Contributions of psychology to war and peace. *American Psychologist*, 68(7), 502-513.
- Constantine, M. G., Hage, S. M., Kindaichi, M. M., & Bryant, R. M. (2007). Social justice and multicultural issue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1), 24-2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Goodman, L. A., Liang, B., Helms, J. E., Latta, R. E., Sparks, E., & Weintraub, S. R. (2004).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as social justice agents: Feminist and multicultural principles in 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6), 793-837.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FL, U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안창규, 안현의 역. *홀랜드 직업선택이론*. 서울: 한국가이던스.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urtado, S., Engberg, M. E., Ponjuan, L., & Landreman, L. (2002). Students' precollege preparation for participation in a diverse democrac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3, 163-186.
- Ivey, A. E., & Collins, N. M. (2003). Social justice: A long-term challenge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90-298.
- Kahn, J. H. (2001). Predicting the scholarly activity of counseling psychology students: A refinement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344-354.
- Lent, R. W., & Brown, S. D. (2006). On

-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research: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1), 12-35.
-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58-465.
- Lent, R. W., Lopez, A. M., Lopez, F. G., & Sheu, H.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the prediction of interests and choice goals in the computing disciplin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52-62.
- Lewis, B. L. (2010). Social justice in practicum training: Competencies and developmental implication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45-152.
- Linnemeyer, R. M. (2010). *Social justice advocacy among graduate stude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S.l.] : Proquest, Umi Dissertatio.
- Miller, M. J., & Sendrowitz, K. (2011). Counseling psychology trainees'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59-169.
- Miller, M. J., Sendrowitz, K., Connacher, C., Blanco, S., Mun˜iz de la Pen˜a, C., Morere, L., & Bernardi, S. (2007). *Development of the SIQ*. Unpublished manuscript.
- Miller, M. J., Sendrowitz, K., Connacher, C., Blanco, S., Mun˜iz de la Pen˜a, Bernardi, S., & Morere, L. (2009). College students'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495-507.
- Neville, H. A., & Mobley, M. (2001). Social identities in context: An ecological mode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psychology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 471-486.
- Nilsson, J. E., & Schmidt, C. K. (2005). Social justice advocacy among 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An initial explor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 267-279.
- Ollif, C. E. (2001). Can 28 days make a difference? A case study of Community Aid Abroad's community leadership program.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39, 353-364.
- Parikh, S. B., Post, Phyllis, & Flowers, C. (2011). Relationship between a belief in a just world and social justice advocacy attitudes of school counselors. *Counseling and Values*, 56(1-2), 57-72.
- Toporek, R. L., & Vaughn, S. R. (2010). Social justice in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psychologists: Moving forward.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77-182.

- Toporek, R. L., & Williams, R. (2006). Ethics and professional issues related to the practice of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In R. L. Toporek, L. H. Gerstein, N. A. Fouad, G. Roysircar, & T. Israel (Eds.), *Handbook for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Leadership, vision, and action* (pp. 17-34). Thousand Oaks, CA: Sage.
- Torres-Harding, S., Siers, B., & Olson, B. D. (201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justice scale (SJ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1-2), 77-88.
- Van Voorhis, R. M., & Hostetter, C. (2006). The impact of MSW education on social worker empowerment and commitment to client empowerment through social justice advocac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2, 105-121
- Vasquez, M. J. T. (2012). Psychology and social justice: Why we do what we do. *American Psychologist*, 67(5), 337-346.
- Vera, E. M., & Speight, S. L. (2003). Multicultural competence,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Expanding our rol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53-272.
- Yamaguchi Susumu, 김기범, 최상진 (1998), 한국 문화에서의 사회 정의와 집단 지향성. *사회과학연구*, 11, 133-152.
- 논문 투고일 : 2014. 03. 31
1 차 심사일 : 2014. 05. 15
게재 확정일 : 2014. 05. 28

Social-Cognitive Model of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for Korean College Students

Moon-Kyung Min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processes based 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of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For this study, we replicated Miller and colleagues'(2009) study, which explained the development of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by social-cognitive career theory(SCCT). Social desirability was controlled, and then self-reports data from 343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stimate Modeling(SEM). As a result, the final research model that social justic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affect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was proven valid for Korean college students. Also, in comparison with the direct effects model(social supports and barriers affect directly on commitment), the indirect effects model(social supports and barriers affect indirectly on commitment through self-efficacy) was supported. As an unique path of social-justice domain, the indirect effect by social support on commitment through outcome expectation was proved, as well. This study covers measurement limitations,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some lessons points with regards to how Korean college students to have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Key words : *social justice, social justice commitment, social-cognitive career theory(SCCT), Social Issues Questionnaire(SIQ)*